

【서평】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뤼시스』와 『에우튀데모스』 우리말 번역—

유 혁

이 글은 2007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시리즈에 대한 서평이다. 그간 다수의 번역 작품들이 속속 선 보이고 있는데, 희랍어 원전 텍스트를 조회하면서 그것들 모두를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서 다루기는 대단히 어렵기에 서평자는 일단 다음의 두 책을 선택하였다.

플라톤, 강철웅 옮김, 『뤼시스』, 서울: 이제이북스, 2007.

플라톤, 김주일 옮김, 『에우튀데모스』, 서울: 이제이북스, 2007.

이 두 권이 전집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간된 작품들이었으니 역자들이 정암학당의 이름으로 내 놓는 첫 작품들에 남다른 공을 들였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고, 두 분 역자들은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번역사업의 핵심 멤버들에 속하므로, 위의 두 역서가 전집 시리즈의 면모와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대변해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서평자는 판단했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pp.5-7, 두 책 각각의 같은 페이지에 공통으로 실려 있다) 플라톤 전집 편찬위원회의 이름으로 밝히고 있듯이 플라톤의 사상과 작품이 서구 사상사에서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리말로 된 플라톤 전집이 없다.” 이 전집 시리즈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것이며 그 수고로운 작업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충분히 칭찬,

격려, 성원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이전에 희랍어 원전에서부터 직접 우리말로 옮긴 플라톤 작품 번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수의 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그리스 철학계의 원로이신 박종현 선생님께서 지고의 열정으로 플라톤의 주요 대화편들을 -최근의 『법률』편 번역을 포함하여- 번역하신 일은 대한민국의 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플라톤 작품 전체를 번역하여 전집으로 출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조직적인 실제 행동으로 한 걸음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이 최초의 것이며, 바로 이 점이 그것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하겠다. 또한 “가능하면 플라톤의 많은 작품들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p.6.)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원전 번역으로 소개되지 않은 작품부터 꺼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점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두 책 모두 본문 번역이외에도 (본문의 분량에 맞먹는) 상세한 주석과 작품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마도 학부강의를 들으면서 번역을 통해서 플라톤을 처음 만나보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지닌 이들이) 주된 독자층이 될 법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 해설과 주석은 그러한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절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다.

가장 중요한 본문의 번역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오역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서평자가 “어, 텍스트의 이 구절은 달리 읽을 수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확인해 보면 그 때마다 역자들도 그런 가능성을 이미 주석에서 언급·설명하고 있었다. 세심한 텍스트 독해와 번역의 모범을 보여준 역자들에게 독자로서 대단히 감사하며 또한 동료 연구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하지만 동시에 서평이란 온당한 비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여 더 진전된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그 본래의 책무이므로, 두 번역서가 좀 더 고려했으면 좋았겠다고 서평자가 생각하는 점들,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대목, 그리고 고전을

번역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여 좀 더 진전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논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플라톤, 강철웅 옮김, 『뤼시스』, 서울: 이제이북스, 2007.

이 번역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장(章)을 구분하는 번호와 제목들이다. 이것은, 역자도 작품개요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역자가 만들어 넣은 것이지 원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역자의 독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함은 어느 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역자는 본문의 앞에 긴 지면을 할애하여 작품해설과 작품개요를 넣어서, 역자가 파악한 대로의 장·절 구분을 이미 친절하게 제시하였다. 그것으로 역자의 배려는 충분하다.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굵은 활자체로 된 장 구분을 만나면, 역자가 의도했던 ‘안내표지’가 길 가에 서있지 않고 길을 차지하고 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서구의 번역본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짧은 대화편의 흐름을 여타의 간섭이나 끊김 없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독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며, 더 나아가 독자 나름의 방식으로 본문을 재구성해 보려는 강한 동기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역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장·절을 구분할 수 있는 여지를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도 역자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친절함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번역에는 원문에는 없지만, “웬걸요, 당연히 다스리지요.”(208d1, p.60.)¹⁾에서 보이는 것처럼, 역자가 삽입한 단어·표현들이 눈에 띈다. 해당 구절의 주석을 보면, 역자는 “이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문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였다.”(p.105.)고 설명하고 있고, 전집의 발간사에서도 “가장 큰 과제로

1) 독자의 편의를 위해 플라톤 작품의 자리표기와 번역본의 쪽수를 함께 표기한다.

삼은 것은 무엇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옮기되 가독성도 살리는 것이었다.”(p.6.)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번역의 원칙을 채택하느냐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에, 이것을 오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서평자의 관점에서는 그 삽입된 말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본문의 대화 맥락 속에서 이해를 돕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플라톤의 작품이 대화로 이루어져있음을 고려할 때, 각각의 대화상황과 개별 사례마다 우리말의 자연스러움과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역자의 주관적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가?

셋째, 대화편의 등장인물들 상호간의 호칭은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는 것이 좋을까? 다음의 예문을 보자.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가 말했네. (211c7-8, p.66.)

사실 위의 짧은 문장에도 서로 다른 두 맥락에서 높임말과 낮춤말이 쓰이고 있다. 우선 “그가 말했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대화편의 액자 밖에서 자신의 리포트를 듣는 누군가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힐 단서는 대화편 안에 없다- 하는 말이며, 그 전달하는 내용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라는 말은 대화의 액자 속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하고 있는 루시스가 소크라테스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다. 이 대목에서 서평자는 이런 질문을 해 본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라? 소크라테스는 누구에게 선생님이었을까? 소크라테스는 과연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누군가의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 그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 사실 ‘선생님’이란 호칭은 희랍어 원문 어디에도 없다. 역자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의 말미에(p.45.) 그리고 미주에(p.96.) 이러한 선택이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우리말의 일상 용법에서 2인칭이나 3인칭 호칭으로 ‘선생’ 혹은 ‘선

생님’을 사용할 때,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어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우리말의 쓰임새를 고려할 때,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그의 대화 상대자들의 관계를 -이 대화편에서 대화 상대자들이 소년들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 소년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우리말의 높임말에 상응할 만한 친소의 거리를 취하며 일종의 예절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선택이 아주 어색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소크라테스에 붙여 사용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기 어렵고 독자의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남긴다. 역자가 선택한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은 말의 자연스러움이기보다는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자연스러움’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높임말-낮춤말’이라는 문화적인 현상을 시공간을 달리하는 고대 희랍 문화의 현상인 것처럼 투사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이 번역만이 안고 있는 논점도 아니고 서평자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기존의 여러 번역들에서 소크라테스를 다른 등장인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호칭-관계설정의 예를 많이 보아왔다. 그런 선택이 가져오는 장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얼마간의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굳이 다시 거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동시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었는지,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논점과 함께, 소크라테스라는 (등장)인물 그리고 그를 통해 플라톤이 보여주는 철학의 모습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연결되는 해석상의 함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2010년 현재를 살고 있는 -서구사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화적인 흐름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는 이제 외국영화를 보다가,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장면을 만나도 특

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저 멀리 바다건너에 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이고 문화일 뿐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거리를 취하면서, 고대 희랍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동시대인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소크라테스의 생생함을 살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택일 것이다. 이 전집에 포함될 후속 번역들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번역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플라톤, 김주일 옮김, 『에우튀데모스』, 서울: 이제이북스, 2007.

이 작품에서는 우선 소크라테스의 절친한 친구와 그야말로 선생(소피스테스)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상대로 등장하기에 이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친구와는 서로 반말을 쓰고, 거리가 있는 사람과는 서로 존칭을 쓰면서도, 호격으로 상대를 칭할 때에는 이름만으로 부르는 것으로 옮겼다. 대화편 내부의 맥락과 우리말(문화)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한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하겠다.

둘째, 번역 본문을 읽다보면 괄호의 용법에 다소간 의문을 품게 된다. 역자가 판본으로 택한 텍스트에서 맞줄표에 이어 등장한 구절들을 (예를 들어, 273e6-274a1, p.35. 그리고 274b7-c2, p.36.) 번역할 때에도 괄호를 사용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관계절을 (예를 들어, 282d4-7, p.51.) 번역할 때에도 괄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역자는 일러두기(p.30.)에서 자신이 괄호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의 두 번역이 같은 전집 시리즈에 속하므로 괄호의 용법을 어느 한도에서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면, 둥근 괄호의 다양한 사용법은 『뤼시스』번역의 일러두기에 자세하게 등장한다. “그리스어 관계문을 옮길 때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 [...] 어떤 말을 넣어서 읽거나 빼서 읽거나 둘 다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뤼시스』, p.48.) 그리하여 『뤼시스』의 역자는 관계절을

(예를 들어, 209d7, p.62.) 옮기거나 쉽표로 구분된 동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예를 들면, 210b1-2, p.63.) 옮길 때에도 괄호로 묶어서 옮겼다. 한글맞춤법 문장기호에도 이음표 항목에 (맞)줄표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맞)줄표나 쉽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일 터인데, 괄호를 애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역자의 설명을 보면, “문장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퀴시스』, p.48.)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의 흐름 속에서 괄호가 어떤 이유로 등장한 것인지는 -원문에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역자가 임의로 보충한 것인지- 원문 텍스트를 조회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셋째, 『에우튀데모스』번역에서는 각주와 미주의 역할을 구분하여, 일반 독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각주로 처리하고 기타 세부적인 이해 및 연구자들을 위한 주석 등은 미주로 처리하였다.(『에우튀데모스』, p.30.) 유용하고 참신한 시도이며 역자가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 기울였을 큰 노력은 값진 것이지만, 본문 속에 서로 체계를 달리하는 주석 번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에우튀데모스』편에 등장하는 논변들과 구성의 난해함을 고려하여, 역자는 부록에서 소피스테스의 논변해설을 통해서 21개의 논변을 재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대한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이다.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21개 논변 각각이 지닌 특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 되어있으며 전체 대화편이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또는 역자의 관점에서) 결국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해설이 추가로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서평자가 지금까지 다룬 논점들이 다른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사소한 것들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시공을 달리하는 외국문화에서 성립된 고전을 번역할 때, 어느 대목에 이르러서는 결국 번역자의 주관적인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좋은 번역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 사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 전집 시리즈로 묶여 계속 출간되어 나올 다른 작품번역들에서 이러한 논점들이 연구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번역은 어렵다. 번역에 대한 서평도 정말 어렵다. 하지만 이 서평이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번역과 관련된 많은 논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철학계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말로 된 플라톤 전집이 발간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역에서 플라톤 전집 편찬위원회의 이름으로 밝히고 있듯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는 한 발전은 없다. 아무쪼록 이 첫걸음이 우리의 철학과 사상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pp.6-7.) 필자도 더불어 기원한다.